

◆ 일본—토멘 코퍼레이션의 해외전력사업 전개 ◆

1. 토멘의 전력사업본부

2000년 2월에 거래 금융기관에 대하여 약 2000억엔의 채권포기를 요청한 종합상사(주)토멘. 어찌됐든 이제 경영 재건을 향하여 다시 달릴 수 있게 되었지만 만일 15년 전에 이 사람이 신규사업에 진출하지 않았더라면 더 어려운 궁지에 놓였을 것이 틀림없다.

그 인물이란 바로 토멘의 전력사업을 통솔하는 호리 토시오(堀俊夫) 전력사업본부장·집행임원(58세)이다. 토멘의 전력부문은 전세계 47개소에 발전설비를 가지고 있으며 상사(商社)로서는 발군(拔群)의 규모이다. 토멘의 2000년 3월기의 연결경상이익 중 약 3할(割)에 해당하는 약 40억엔은 호리씨가 거느리는 전력부문에서 벌어들인 것이다.

2. 호리 본부장의 예리한 착안

토멘의 발전사업은 1986년 당시 뉴욕에 주재하고 있던 호리씨의 착안으로 시작되었다. 이 무렵 산업기계 부분의 영업을 담당하던 호리씨는 자기

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허무함을 느끼고 있었다.

「기계를 팔아 메이커로부터 구전(口錢)을 받는 것이 부가가치가 높은 일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재벌계상사와 같이 그룹 내에 강력한 메이커를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토멘의 경우는 아무리 노력해도 메이커는 자체 그룹의 상사를 지정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일이 성사되어도 구전은 적었다」라고 그는 회상한다.

3. 미국의 대체에너지 우대조치

발전사업에의 진출에 착안한 것은 그런 때였다. 발전설비를 팔고 있었던 관계로 호리씨는 미국의 전력사정에 밝았다. 호리씨가 주목한 것은 미국의 풍력발전설비에 대한 우대조치였다.

당시 미국에는 에너지정책의 일환으로 석유에 대체되는 발전설비의 경우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하면 약 30년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다.

4. 30년간의 수입 보증

「30년간에 걸쳐 수입이 보장된다.

더구나 고객은 전력회사 등 신용이 높은 기업이다. 이것이면 상사가 진출해도 비교적 리스크가 적은 것이 아닌가」라고 호리씨는 생각하였다.

그렇다고는 하나 호리씨가 제안한 캘리포니아주에서의 풍력발전사업의 설비투자액은 당시 환율로 약 12억엔에 이르는 규모였다. 계획대로 발전할 수 있으면 좋지만 풍력발전의 경우 예상한 만큼 바람이 불어주지 않을 우려가 있다. 그래서 호리씨는 이미 가동하고 있는 풍력발전의 실적과 현지에 대한 과거의 풍량(風量)과 풍향(風向) 등을 조사하여 바람이 불지 않는 리스크를 독자적으로 계산하였다. 최종적인 결론은 「바람이 불지 않는 리스크보다도 기계를 팔고 있으면서 고객이 도산한다든가 경기가 악화하는 리스크 쪽이 훨씬 더 크다」는 것으로서 호리씨의 안은 채택되었다.

1987년에 가동된 제1호 플랜트는 기대한 대로 성공을 거두었다. 그후 이 회사는 유럽과 미국 등 규제완화가 진행되고 있는 해외를 중심으로 풍력뿐 아니라 천연가스, 중유 등의 연료에 의한 발전사업도 전개하게 되었다.

5. 일본을 대표하는 키 퍼슨

지금 호리씨는 이 분야에서 일본을 대표하는 키 퍼슨이다. 2000년 3월에는 세계은행이 주최한 자연에너지 세계대회에 초대되었으며 패널 디스커션의 사회역을 맡기도 하였다.

「장사를 하려 하지 말고 디벨로퍼가 되어라」라고 호리씨는 현재 약

75명인 전력부문의 부하 직원들에게 이렇게 되풀이 말하고 있다. 「토지를 마련하고 발전사업의 허가를 얻고 전력수급의 계약 대상자를 확보한다. 파이낸싱을 제공할 짝을 구하고 플랜트 설비의 규격을 결정한다. 상품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팔아 구전을 얻는 스타일이 아니라 사업의 운영주체

가 되는 것으로서 장기적으로 이익을 확보한다」.

지금은 이와 같은 비즈니스모델의 중요성을 말하는 관계자가 많으나 15년 전에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행동에 옮긴 사람은 적었다.

(자료: 「넛케이 비즈니스」, 2000. 5. 29.)

중국—전력산업 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지방정부의 저항

1. 중앙정부의 경쟁체제 도입계획

베이징(北京) 당국이 중국의 전력 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지 2년이 지난 지금 지방정부의 저항에 부딪힌 중앙정부는 크게 자랑할 만한 이 계획을 실시하지 못한 채 무기한 연기시킬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베이징 당국에 대한 광범위한 정치적 불복종의 형식으로, 초기개혁의 대상으로 선정된 다섯 개 성(省)과 하나의 도시가 단순히 그들의 개혁계획서를 베이징 당국에 제출하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일련의 조치를 멈추어 버린 것이다.

지방민들은 많은 것을 잃게 되었다. 전력산업의 새로운 경쟁체제 때문에

그들의 발전소 중 가장 효율이 낮은 것을 강제로 폐쇄시켜야 했으며, 또한 1990년대에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며 지방정부가 유치한 외국인 투자자들을 실망시키게 되었다.

2. 10년 이상이 지연되는 개혁 프로그램

한편으로 이와 같은 개혁의 지연은 오랫동안 견뎌온 전기사용 고객들과 산업체들에게는 최소한도 다시 10년간을 고가(高價)의 전력에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쁜 뉴스가 되고 있다.

“이것은 2010년말까지 전국적으로 완전한 경쟁체제를 확대시키겠다는

국가의 당초계획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홍콩 메릴 린치의 분석가인 왕구화씨는 말한다.

3. 1950년대에 성(省) 단위로 전력개발

중국의 계획경제하에 1950년대 초부터 각 성(省)의 정부는 현지 수요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자체 발전소를 건설하였으며, 전기사용자들에게는 발전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만큼만 요금을 징수하였다. 이와 같은 “비용-회수” 발전소는 실질적으로 대부분이 비효율적이며, 석탄을 연소하는 것으로서 아직 중국전체 전력의 40%를 공급

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성(省) 단위로 전력사업체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다른 주에 더 효율적인 발전소가 새로 건설된다 하더라도 그 발전소에서 보다 저렴한 전기를 구입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정치적으로 기대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린 것이다. 그 결과 쓰촨(四川)과 같은 내륙지역은 수력발전소의 전력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포기하여야 하는 한편 연해변의 성(省)들은 전력이 부족한데도 현지 생산자로부터 높은 가격으로 전력을 구입하는 이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만들었다.

4. 전력유통을 기피하는 성(省) 전력사업체

전력요금이 싸지면 (1999년 평균 kWh당 0.46위안(元) 또는 6 미국 센트)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에어컨디셔너나 조명기기 등과 같은 소비자 전기사용 용품의 판매를 억제하게 된다. 베이징 당국은 이 나라 전력산업에 완전한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전국적으로 평균 20%의 전기요금 인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베이징 당국은 1998년에 처음으로 상하이(上海)와 다섯 개 성(저장, 산둥, 랴오닝, 헤이룽장 그리고 지린)의

전력그리드는 전기 구입시에 컴퓨터화된 경매시스템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로부터 구입할 것을 의무화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들 여섯 개 지방정부는 모두 그들 관할구역에서의 소위 말하는 유통로(오프레이크) 경쟁체제를 도입하는데 다른 세부 시행방안을 베이징 당국에 제출하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다.

5. 경쟁체제 도입으로 전기요금 20% 이하 기대

매릴 린치의 왕씨에 의하면 베이징 당국이 금년에 컴퓨터 경매를 통해서 구입하는 전력은 여섯 개의 전력 그리드에서 전체 수요전력의 단지 10%~15% 정도이며 이 계획대로라면 2007년이 되어도 이것은 겨우 50%에 이르는 데 불과하다. 따라서 베이징 당국은 2007년 이후 이 나라의 다른 지역으로 개혁을 확대시키는 시간표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의 완전한 경쟁체제 도입은 이보다 훨씬 적다.

이와 같은 경쟁체제 도입의 지연은 중국 전력 프로젝트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환영할 만한 뉴스이다. 만일 개혁이 성공하게 되면 그들이 높은 전기요금을 기대하고 멀리 떨어진 오지에 건설하고 있는 발전소들의 전

력수급계약에 있어서 그들의 입장이 서서히 약화되거나 없을까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미국에 본사를 두고 1993년 이후 중국에서 여덟 개의 발전소 프로젝트에 3억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AES 코퍼레이션은 보다 느린 개혁이 몇몇 전기요금 체제 분쟁에서 자기들의 입지를 강화시켜주게 될 것으로 믿고 있다. 이들 분쟁중인 프로젝트의 하나로 현재 AES가 2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산시(山西)성에 위치한 16억달러의 대형 신에 발전소로부터 전력을 구입하기로 약속한 장쑤(江蘇)성 당국은 개혁이 어느 곳에서도 전기요금을 내리하게 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AES에게 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시 협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6. 다른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전력부문 개혁

“개혁의 지연은 개혁의 고통을 덜어준다”라고 AES의 자회사인 싱가포르의 AES 트랜스파워의 윙킴인씨는 말한다. 또 “베이징 당국은 개혁 지연에 따르는 추가비용을 제시하였어야 했다”라고 그는 덧붙여 말한다.

개혁 지연의 여파는 전력부문 밖으로 번져나가고 있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베이징 당국이 완강한 지방정부에게 개혁을 받아들여도록 통제

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태 때문에 WTO가 중국의 가입건에 대해 빨리 응낙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분석가들은 말한다.

7. 우려되는 지방정부의 기득권 집착

“베이징 당국이 이미 단독으로 얻은 현지 이익을 침해하고 뿌리깊은 인습을 거스르는 조항들로 구성된 통상협정의 시행을 보증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불명확하다”라고 컨설턴트인 옥스퍼드 애널리티카는 최근 중국의 WTO 가입에 관한 보고서에서

말하고 있다. 또 “그들의 보호무역주의의 경향은 WTO 정식 가입승인 이후에 더욱 강화될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라고 덧붙이고 있다.

(자료: 『Far Eastern Economic Review』, 2000. 6. 29)

◆ 미국 — 에머슨 일렉트릭과 인터넷 백업 파워시스템 ◆

1. 새로운 분야의 사업 확장

어떤 사람들 특히 월스트리트의 사람들에게 단지 기쁨만을 주는 일이란 있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생각이 금년 초에 찰스 F. 나이트씨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음이 틀림없다. 에머슨 일렉트릭 컴퍼니의 회장이며 최고경영책임자(CEO)인 그는 세인트루이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전기부품회사를 42년째 계속해서 이익이 증가하는 획기적인 해로 만들었다. 그러나 미국에서 더욱 많은 찬양을 받고 있는 CEO의 한사람인 나이트회장은 고맙다는 절을 받는 대신에 급격히 하향곡선을 긋고 있는 이 회사의 주가가격 때문에 공격을 받았다. 2000년 3월 중순 에머슨 주식은 전기기기 메이커들 사이의

하강기류의 영향으로 3개월간에 33%가 하락하여 40달러를 약간 넘는 가격에서 멈췄다. 과거 3년간에 걸쳐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한 것이다. 회사가 돈을 벌거나 벌지 않거나 간에 주주들은 에머슨이 아직도 저(低) 성장의 고루한 낡은 회사라고 투덜대며 불평했다.

그러나 에머슨이 수지맞는 새 사업에 뛰어들자 불평은 조용하게 가라앉았다. 2000년 1월에 에머슨은 9억 8천만 달러로 조던 인더스티리즈 사(社)의 텔레커뮤니케이션 생산품사업에 대한 경영권 확보를 위한 지분 취득을 완료하였다. 그리고 4월에는 스웨덴의 전화기 제조회사 에릭슨의 전력공급 사업부의 경영권 확보를 위하여 7억 2500만달러의 달을 결정하였다고 발

표하였다. 이와 같은 새로운 분야에의 사업확장이 올드 이코노미(구 경제) 주식의 리바운드와 결합하였으며 월스트리트가 기다리고 있던 바로 그것이었다. 에머슨의 주식은 그때 이후 50% 이상을 뛰어 약 63달러에 이르렀다.

2. 컴퓨터 네트워크의 필수품인 백업 파워시스템

투자자들의 에머슨을 향한 애정 어린 마음의 변화는 쉽게 납득할 수 있다. 전동기, 냉장고 부품과 산업용 공구들을 판매하는 것으로 더 잘 알려진 110년의 역사를 가진 이 회사는 이제 컴퓨터 네트워크의 붐을 일으키고 있는 신뢰성 있는 백업 전력시스

템의 수요로 큰 이익을 창출하고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전력사업에 대한 규제철폐로 전력계통의 용량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그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고 이제 정전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에머슨의 장치는 전력공급이 중단되면 바로 작동하여 전원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환시키고 전압을 조정하게 되며 또한 임시 발전을 위한 디젤발전기와 연료전지를 제공한다.

이들 제품들은 사업수행에 인터넷을 사용하는 기업체에서는 반드시 구입하여야 하는 필수품이 되었다. "에머슨의 잠재력은 엄청나게 크다"라고 SBC 커뮤니케이션스의 회장 겸 CEO이며 에머슨의 임원인 에드워드 휘타크르씨는 말한다. 백업파워 시스템 사업의 인수는 2000회계연도에 매출을 40억달러 추가시켜 154억 달러로 증가시키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으며, 이것을 담당하는 전력사업부를 에머슨의 다섯 개 사업부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사업부로 만들었다. 그리고 건실한 15%의 마진으로 이 사업부는 가장 이익을 많이 내는 사업부의 하나가 되었다. 프루텐셜 증권사의 분석가인 니콜러스 P. 하이만씨는 이 사업부가 1999년의 12%에서 2000년에는 에머슨의 25억 달러 경영이익 중 거의 20%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3. 일상화된 전력계통의 정전사고

그러나 이제 몇몇 사람들은 나이트씨가 인수·합병 전략을 너무 멀리까지 전개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 그는 루센트 테크놀로지스(社)의 파워시스템 사업에 관심을 두고 관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밀로 하지 않고 있다. 이 사업은 지금은 루센트의 연간수입 380억달러 중 3%를 점하고 있으나 앞으로 30억달러까지 성장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나이트씨가 떠맡기에는 규모가 너무 크다고 몇몇 투자자들과 분석가들은 경고한다. 또한 장기부채는 1999년 이후 약 14억달러로 줄어들지 않고 있어 분석가들은 나이트씨가 과도한 지출을 조심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이들은 기관투자자들로부터의 상업어음과 단기채 파이낸싱으로 이루어졌다. "에머슨의 부채부분은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으며, 그들은 다른 매수에 의한 통합에 더 많이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하이만씨는 말한다. 그러나 나이트씨는 걱정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루센트의 경쟁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한다.

아직은 나이트씨가 잘못 판단할 여지는 많지 않다. 한편으로 텔레커뮤니케이션과 전자 유닛이 불을 이루고 있으나 에머슨은 느리게 성장하고 있는 사업부들과 아직 겨루어야 한다. 이

회사의 발열장치, 에어컨디셔닝 및 산업자동화 유닛 등을 포함하는 다른 부문의 사업들은 모두 판매고가 전연 성장하지 않거나 한자리 숫자에 머무르고 있다.

4. 인터넷관련사업 신뢰성 보증의 유일한 방법

그것이 백업전력을 제공하는,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서비스가 에머슨에게는 그렇게도 중요한 이유이다. 그와 같은 백업시스템이 인터넷과 일체(一體)가 되고 여기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이 사업에 대해 완전무결한 신뢰성을 가지고 보증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설 전력 그리드로서는 그와 같은 신뢰성을 보증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며, 많은 회사들이 전력회사에서 공급하는 전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백업 파워시스템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에머슨은 앞으로의 판매성장을 위해 그 수요에 크게 기대를 걸고 있다. "이것은 경제에 관계없이 두 자리 숫자의 성장이 거의 보장되는 한 분야이다"라고 에드워드 존스의 한 분석가인 매트 콜린스씨는 말한다. 에머슨은 인수한 하이테크 파워시스템 사업이 연간 15% 내지 20% 성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이 사업은 중요한 성장시장이다”라고 에머슨의 주식을 260만 달러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스테이트 팜 뷰추얼 오토모빌 보험회사의 대변자인 리처드 G. 루드케씨는 말한다.

5. 많은 고객의 확보와 결정적인 역할

확실히 이와 같은 신뢰성은 시스코, 월드컴 그리고 인텔과 같은 회사들을 고객으로 만들었다. E비즈니스 웹 호스팅회사인 인티라 코퍼레이션은 1998년부터 백업으로 에머슨의 전력공급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인티라가 블랙아웃과 기타 정전에 대처하게 될 때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2000년 6월에 인티라의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데이터센터는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회사의 변압기 고장으로 7시간의 정전을 겪었다. 에머슨의 백업장치는 인티라의 웹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유지시켰다. “우리 시스템이 다운되면 우리는 모든 영향을 받는 고객들에게 1개월간의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되며, 그렇게 되면 우리들에게 몇십만 달러의 추가비용을 발생시키게 된다”라고 인티라 코퍼레이션의 최고기술책

임자(CTO)인 존 R. 스티븐슨씨는 말한다.

뉴 이코노미(신 경제) 산업에 대한 전력공급의 지원은 의심할 나위 없이 에머슨에게 큰 발전을 가져오게 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인가? 나이트회장은 42년간의 연속적인 이익발생의 기록을 계속해서 활성화시키기를 원한다면 그의 사업 중에 다른 부문에 대한 전략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은 에머슨의 일찍이 없었던 가장 큰 파워플레이임이 증명될 것이다.
(자료: 『Business Week』, 2000. 7. 24.)

◆ 미국—다시 요구되는 에너지소비의 절감 정책 ◆

1. 붕괴되기 시작하는 전력 시스템

몇 해 동안의 값싸고 풍부한 에너지 시대가 지나간 후, 값은 폭등하였고, 신뢰성은 떨어졌다. 석유 값은 1999년 1월 이후 거의 3배가 되었다. 휘발유는 모든 곳에서 올랐으며 미국의 중서부의 어떤 곳에서는 2달러를 넘어섰다. 일반적으로 여름에는 낮은 천연가스의 가격도 1년 전에 비해서 거의 두 배로 올랐으며, 겨울이 오면 더 오를

가능성마저 있다. 모든 예측을 통해서 볼 때 난방유도 이와 마찬가지로 사실이다. 그리고 미국 전역의 전력 그리드는 붕괴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곳곳에서의 정전사태와 에어컨디셔너를 위한 여름 전력수요의 급상승이 전기요금의 상승을 위협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미국은 또다시 1970년대의 에너지 위기를 되풀이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징후는 경고신호로 받

아들여야 한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다 같이 끊임없이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무제한의 공급에 의존하는 에너지 정책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것은 결국 국가를 공급의 중단과 외국 권력자의 변덕에 의하여 상처받기 쉬운 상황으로 남겨놓게 된 것이다.

2. 소비를 절약으로 대체한 1970년대

이와 많이 유사한 상황이 1970년대

초에 있었으며, 이때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석유 공급을 삭감함으로써 가격을 상승시켰다. 그러나 10년간의 에너지 위기는 1980년대 초 미국사람들로 하여금 소비가 아니라 절약이라는 용어를 생각하게 되는 기간으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변화는 눈부신 결과를 초래하였다. 1973년부터 1986년까지 미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인플레이션분 보완후—43%가 증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에너지소비는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1988년에 승용차와 경(輕) 트럭—미니 밴,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을 포함하는 카테고리—은 갤런당 평균 26마일을 주행하게 되었는데, 에너지 위기 이전에는 승용차는 약 15마일을 주행하는데 불과했다. 1987년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전기기구에 대한 에너지효율 기준을 수립하는 법안에까지 서명하였다. 자동차와 기타산업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위하여 싸우고 있을 때 고유가와 연계된 새로운 규칙이 좋은 결과를 이룩하였다. 수요는 내려가고 에너지가격은 다시 저렴해졌다.

3. 획기적인 결과를 이룩한 새 정책

소비자들은 이와 같은 새로운 절약 정책으로 두 번 이익을 보았다. 즉 휘

발유 구입비용이 저렴해졌으며 또 그들은 과거와 같이 그렇게 많이 휘발유를 구입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전기요금에 대하여도 이와 마찬가지로 현상이 발생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이 전략은 또한 OPEC의 결속을 약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유가가 아래로 굴러 떨어지자 OPEC 회원국들은 수입을 더 올리기 위하여 그들의 할당량보다 더 생산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단 가격이 떨어지니까 소비자들은 그들이 사용하는 에너지를 얼마나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져버렸다. 미국의 에너지수요는 1990년대에 15%가 증가하였으며, 또다른 가격의 급격한 동요의 무대가 펼쳐지고 있다. 놀라울 것도 없이 OPEC는 미국사람들이 넘겨준 비즈니스 기회의 유리한 입지를 차지한 것이다.

4. 다시 증가하는 에너지 소비

원유 배럴당 30달러와 휘발유 가격 갤런당 2달러 이상에 대한 반응이 소비를 절감시키는 어떤 유사한 조치를 유발하게 될 것인가? 거의 그렇지 않다. 그 대신 OPEC 회원국에 대하여 생산을 증가시키라는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석유 카르텔이 2000년 6월에 1일 70만배럴 이상의 증산을 결정한 후에조차도 열기가 남아 있었다. 실제로 7월 3일 사우디아

라비아는 클린턴 행정부의 막후 로비에 굴복하여 가격이 계속해서 높게 유지되면 1일 50만배럴을 더 생산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여기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밤 사이에 거의 7% 하락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언제나 새로운 자원이 발견되고 있다. 예를 들면 카스피해의 유전은 앞으로 10년 이내에 생산에 들어가게 될 것이며, 이것은 지금까지 발견한 가장 큰 유전의 하나임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외국 원유공급의 증가가 에너지부족을 완화시키는 하나의 방법이라면, 이것은 또한 미국경제의 약점을 더욱 외국정치에 노출시키는 결과가 된다. 에너지를 공급함에 있어 수요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임을 감안할 때 외국원유공급의 증가는 진정한 미국에너지 문제에 대한 임시 대책에 불과하다.

5. 심각한 환경파괴 문제

증가하는 수요 때문에 미국은 보다 스모그가 많은 도시와 보다 오염된 공기와 맞닥뜨리지 않으면 안될 뿐만 아니라 보다 더 중요한 문제인 지구온난화와 대처하여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서의 악역(惡役)은 이산화탄소이며, 이것은 그린하우스의 창처럼 대기 중에서 열을 잡아두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석유와 가스를 더 많이 연

소시키면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으로 내보내게 된다. 이산화탄소의 증가는 오는 100년간에 미국의 대기온도를 화씨 5도 내지 10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해안에 물이 넘치게 되며, 도시에 더 많은 열파(熱波)를 초래하며, 농업과 물 공급과 기타 문제들의 붕괴를 초래하게 된다.

석유소비를 절감시키는 한 가지 방법은 자동차 연료효율기준에 다시 위력을 주는 것이다. 미국 에너지효율경제협의회(ACEEE)의 집행이사인 하워드 S. 켈러씨는 새 자동차가 1987년 이후 매년 갤런당 단지 1마일씩만 주행거리가 증가해도—경트럭은 갤런당 0.5마일씩 증가—미국은 매일 석유 130만 배럴을 절약하게 된다고 계산하였다. 기준이 기능을 멈추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팔리고 있는 가장 휘발유를 많이 소비하는 자동차들—미니밴, 스포츠·유틸리티 차량 및 경트럭 등—은 자동차 기준에서 제외되어 있다. 더욱더 자동차 제조업체에게 연료경제를 향상시키도록 압력을 가중시켜야 할 것이다.

6. 전력사업 규제철폐에 수반하는 문제들

그러나 석유만이 단 하나의 문제인 것은 아니다. 치솟는 수요와 유가의

상승은 천연가스의 가격을 동시에 상승시킨다. 이와 같은 동시상승의 한가지 이유는 많은 발전소들이 천연가스 또는 유류 어느 것이나 연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가격이 서로 연동되려는 경향 때문이다. 한쪽이 부족하면 양쪽의 가격이 상승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전력공급 산업에서는 규제철폐를 지향하는 것이 다른 문제들을 유발시키는 또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 전국 어디에서나 전기를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전력회사들은 매우 많은 양의 전력을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기 시작하였으며, 전력계통 그리드는 여기에 합당하게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태를 견딜 수 없게 된 것이다. 더욱이 투자자소유 전력회사들을 대변하는 워싱턴의 에디슨전기협회(EEI)의 토마스 R. 쿤 회장은 전력회사들이 새 송전선로에 대한 투자를 유발하는 재정적인 인센티브가 없다고 말한다. 정책에 약간의 변경이 없는 한 새 송전선로는 건설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보다 높은 전기요금과 보다 많은 정전사고가 불가피함을 의미한다.

미국만이 에너지소비 성장에 있어서 유일한 범인은 아니다. 세계 곳곳에서의 소득의 증가와 성장하는 경제는 에너지수요의 급증에 기여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과거 10년간 전세계적

인 석유소비 증가의 4분의 3은 미국 이외의 곳에서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미국이 가장 큰 에너지 소비국이며, 어떤 체제로부터 아마도 가장 적게 고통을 받는 생활수준을 가진 국가이다.

7. 엄청난 에너지소비 욕구의 포로

그러나 1980년대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짙은 절감운동을 저버림으로써 미국은 값싼 에너지의 제한 없는 공급을 필요로 하는 에너지정책으로 문제를 안게 된다. 이것을 극복하는 길은 보다 강력한 규정 또는 새로운 과세인데, 정치인들은 결코 좋다고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약을 보다 덜 쓰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 에너지 세금을 택스-뉴트럴로 설계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휘발유 세금이 상승하면 소득세금의 감소로 상쇄시켜 나가는 것이다. 아직까지 그것조차도 워싱턴에서는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때까지 미국은 과거 어느 때보다 외국 석유에 더욱 의존하는 일이 계속될 것이며, 그리고 그 자신의 엄청난 에너지 소비욕구의 경제적인 포로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

(자료: 『Business Week』, 2000. 7. 17.)